

# 회장단회의, 시·도회장회의 및 제151차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151차 이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3월 4일과 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와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직제규정 개정(안), 상임이사 선출, 자문위원 위촉 등을 협의했으며, 협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또한 지난 3월 1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5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제53회 총회(정기) 소집 △유공자 포상 △직제규정 개정(안) △상임이사(경영부회장) 선출 △자문위원 위촉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장단회의(3월 4일)




시도회장회의(3월 9일)

이상일 회장은 시·도회장회의 및 이사회 인사 말을 통해 “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주환경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해 고 무발포단열재 관급자재 폐지,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를 비롯해 플랜트 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 종합건설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회장은 또한 “특히 건설업계를 어렵게 했던 최저가낙찰제와 실정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로 개선된 것은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지자체의 분리발주 확대를 비롯해 분리발주·주계약자 공동도급 TF위원회와 TF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실적이 늘어나 우리업계의 수익구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회장은 “협회에서는 협회·조합·연구원 홍보관 설치를 비롯해 경향하우징페어에 우리협회 홍보관 마련 등 기계설비의 대내외적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 금년 한해 동안 중점 추진사업에 전념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업계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회장단 회의부터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적용했다.

회장단회의· 시도회장회의· 이사회를 통해 보고된 협회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 진행

### 협회 사업추진 현황

- 분리발주·주계약자공동도급 TF 운영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시 하도급자 보호 규정 마련과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 공사 범위 변경 추진
- 회원사 권익보호 및 불공정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추진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보증서 요구 방지 추진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추진
- 해외진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 추진
- 플랜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추진
- 발전플랜트 기계·보일러설치공사 현안 및 적정공사비 반영 건의 추진
- 2015년 기계설비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 기계설비 관급자재 축소 추진
- 산학협력 위탁교육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 협회 홈페이지 재편성 오픈
- 2015년 시·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잠정)
-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발표
- 기계설비건설 홍보관 개관
- 협회 홍보활동

# 더불어민주당에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전달



우리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책과제집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 첫번째 성장진 경영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집'을 김종인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책과제 전달식에는 김종인 당대표, 이용섭 총선기획단장, 이목희 정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우리협회 성장진 경영부회장을 비롯하여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메인비즈협회 박용주 회장 등 중소기업계 11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정책과제집에는 우리 협회가 건의한 ▲주계약자 공동등급 제한규제 폐지 ▲플랜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건설공사분리발주 금지 규제 개선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생

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일자리창출 확대 과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제 등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제를 담았다.

성장진 경영부회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7천여개의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수직적 발주방식으로 인해 만년 하도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건설업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

급이나 분리발주 등 수평적 발주방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시행이 미미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며 “특히 내공사 등 공공건설공사 주요 발주기관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 제65차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개최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 3월 23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5 회계연도 가스특별회비 세입·세출을 결산했으며 201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시공감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건의와 2015년 가스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을 비롯해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결과를 보고했으며,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계

획(안)과 가스시설시공업 2016 Work-Shop 개최(안) 등을 논의했다.

이두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러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특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원활히 추진되었다”면서 “올해는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도 배로 늘릴 계획이므로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 제36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36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 ‘제20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집’ 전달 및 건설공사 분리발주 금지 규제 개선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등 건의 내용을 비롯해 국토부, 내공사, 가스공사 등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약의 내용과 주요 분리발주 현황 등을 보고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기계설비에 집중해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 우리 TF위원회가 가스공사

에 대해서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형 가스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제한 협조를 구하거나 회원사의 컨소시엄 구성도 독려하여 우리 회원사의 수주물량 향상에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윤 위원장은 또한 “플랜트 현장의 외국인력 고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보다 노조가 훨씬 발달한 나라의 외국인력 허용 사례나 중동, 특히 플랜트 건설공사가 활발한 지역의 인력구성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한규제의 허점을 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원사소식

## 남성기전(주) 최전남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임




남성기전(주)  
최전남 대표

남성기전(주) 최전남 대표가 지난 2월 29일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최전남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자동제어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심의회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간담회와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자동제어

업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전남 대표는 나눔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협회 제7대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 태안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시, 자동제어협동조합의 장학회 설립,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기탁 등 기업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전남 대표는 현재 협회 서울특별시회 감사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제294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3월 15일 기계설비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9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3월 15일 기계설비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9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3월 29일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감사패’ 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백종윤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은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고 밝혔다.

백종윤 회장은 또한 “우리협회 최전남 감사님께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기계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서울특별시회 3·4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업무 추진
- 제48회 총회(정기) 개최
-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 4월 운영위원회 및 춘계 회원사 등산대회 개최
- 2016년 상반기 권역별 회원사 간담회 준비
- 제3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 접수 

## 제6차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회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회장 박영진)는 지난 3월 1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회는 2015년 전국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을 비롯해 서울시회에서 추진중인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업무 현황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해 시행중인 위탁교육 사항,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안내했으며,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실무교육 실시 및 2016년도 적용 기계설비 표준품셈 배부 등 서울시회 추진업무와 해외건설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2016 ASHRAE

EXPO 참석, 기계설비건설 홍보관 개관, 2016년 경향하우징페어 기계설비전시회 후원 및 홍보관 전시 등 협회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세 경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6월에는 노무 전문가를, 9월에는 회계·세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기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회는 기계설비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회 2세 경영인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차세대 기계설비건설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왼쪽 첫번째 김석환 회장, 오른쪽 첫 번째 양복완 행정2부지사)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분리발주 및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2016년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양복완 행정2부지사, 윤광신 도의원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건설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석환 회장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분리발주를 확대 시행해야 하며, 우리 도내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건설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다른 실

물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경기도는 우리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건의사항 이행능력 강화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를 위하여 시·군 조례 개정 추진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 정착 △부실업체·규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분할 발주 적극 검토 시행 △공사용 자재 구매계약시 납품과 현장시공 구분 강화 등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